

부산시, '젊고·활기찬 도시' 조성에 5년간 1.9兆 투입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일자리·주거 등 5대분야 구성
청년고용률 50% 달성 등목표

부산시가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1조 909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젊고 희망이 있는 활기찬 도시' 조성에 총력을 기울인다.

부산시는 10일 청년들이 부산에 머무르며 꿈을 이뤄 나갈 수 있도록 '기회·안정·활력'을 키워드로 한 '제2차(2024년~2028년)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최근 청년 연령의 상향과 삶의 만족도 조사 1위 등 청년정책 여건이 전환 국면에 있다고 분석,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마무리하고 올해부터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추진한다.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젊고 희망이 있는 활기찬 도시'를 슬로건으로 ▲일자리·창업 ▲주거 ▲교육 ▲문화·복지 ▲활력·참여·성장의 5대 분야



부산시가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1조 909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젊고 희망이 있는 활기찬 도시' 조성에 총력을 기울인다. /부산시

로 구성됐으며, 5년간 59개 사업에 총 1조 909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우선, 2028년까지 청년고용률 50%까지 달성한다. 시는 청년과 기업의 일자리 mismatch 해소를 위해 청년의 구직기간을 단축하고, 창업 단계별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향후 6조원대 투자를 목표로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과 미래 먹거리 중심의 기업 유치 및 금융특구 지정 등

오는 2028년까지 청년고용률을 50%로 올릴 계획이다.

또한, 2028년까지 청년임대주택 1만1100호 공급을 통하여 주거 문제를 해소하고 '주거비용 경감-주거 피해 예방-내 집 마련'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청년 주거 안정화에 나선다.

시는 오는 2028년까지 청년임대주택(공공임대, 희망더함주택, 럭키하우스 등)을 총 1만1100호 공급하고, '부산형 청년 원가주택' 사업 등을 통

해 청년 맞춤 공공주택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부산 지역 글로벌대학 1곳→5곳까지 확대하여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실무에 강한 준비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 교육체계를 개선한다.

1만원 내고 11만원 공연 관람하는 '청년만원 문화 패스' 도입하여 시는 청년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의 자산 형성과 자립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 전용 자산 형성 사업인 '부산 청년 기쁨두배 통장'은 올해에도 연 4000명 규모로 시행되고, 신용 회복 및 개인회생 지원 등 '청년 부채 부담 경감 사업'과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도 지속해서 실시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의 미래는 청년들에게 달려 있고, 이번 청년정책 대전환을 통해 부산이 '젊고 희망이 있는 활기찬 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진도군

'신비의 바닷길 축제' 열려

대한민국 유일의 민속문화예술특구인 진도군이 제44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를 11일(월)부터 13일(수)까지 개최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명예문화관광축제인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는 고군면 회동리와 의신면 모도리 사이 길이 2km, 폭 30-40m의 바다가 갈라지는 신비한 바닷길 체험과 진도의 우수한 문화·예술을 널리 알리고 있다.

'봄의 시작, 신비의 바다에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진도군이 주최하고 진도군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라남도, 한국관광공사가 후원한다.

/진도(전남)=이대호 기자

전남도

해외 상설판매장 신규개설 지원

전라남도는 농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 상설판매장 신규 개설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해외 상설판매장은 케이(K)-푸드 열풍을 토대로 안정적 수출 판매장 구축을 통해 전남 농수산물 수출을 세계로 확장하는 새로운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신규 개설할 해외 상설판매장은 총 10개소로, 오는 15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전남산 농수산물 전문으로 취급하는 해외 대형유통매장 내 판매장 또는 단독매장을 운영하는 기업이다.

/전남=양수영 기자

경북도

K리그 김천 홈 개막 경기 가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9일 김천시민운동장에서 개최된 K리그1 김천상무프로 축구단 홈 개막 경기에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하고 시축했다.

이번 개막 경기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중섭 김천시장(구단주), 이명기 김천시의회의장, 김점두 경북체육회장, 최한동 김천시 체육회장, 김동열 국군체육부대장, 축구팬 등 50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K리그2(2부) 팀인 김천상무는 이날 지난해 1부리그 우승팀인 울산HD FC와 경기를 가졌다.

/경북=장영우 기자

경남도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경상남도는 외국인근로자의 지역 정착을 돕고, 체류지원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도내 3개소의 거점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3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1월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지역 정착 지원 공모사업'에 전국에서 최다규모인 3개소가 선정돼, 창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오는 10일부터 서비스를 재개한다. 김해와 양산도 이달 중순 개소해 도내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지원을 시작한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광주 옛 방직공장, '더현대'로 재탄생

현대백화점그룹, 3.3만평 계약
내년 상반기 착공, 2028년 개점

광주 임동 옛 방직공장이 '친환경·최첨단기술·예술·엔터테인먼트·로컬'이 결합된 복합쇼핑몰로 재탄생하는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임동 방직공장터 개발에 나선 현대백화점그룹이 '더현대 광주'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복합쇼핑몰 부지 매매계약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계약한 부지는 3만3000㎡(1만평) 규모다. 더현대 광주는 친환경, 최첨단기술, 예술, 엔터테인먼트, 로컬 등 5가지 문화테마가 어우러진 문화복합쇼핑몰을 조성한다.

더현대 광주는 설계 절차를 진행한 뒤 올해 하반기 건축인허가를 받아 내년 상반기 건축물을 착공, 2028년 초 개점할 계획이다.

건축물 설계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세계적 건축가 '헤르초크 앤드 드 뫼



광주 임동 문화복합쇼핑몰 '더 현대 광주' 투시도. /광주시청

룽'(Herzog & de Meuron)이 맡았다. 헤르초크 앤드 드 뫼룽의 대표작으로는 2006년 독일월드컵 개막전이 열린 아리아나트 아레나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주경기장 등이 있다.

광주시는 임동 방직공장터 사업계획이 담긴 지구단위계획안(도시관리계획 변경)을 18일까지 광주시와 북구, 임동주민센터에서 공개한 뒤 의견을 청취해 환경, 교통, 주거정책 심의 등 법적 행정절차와 광주시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결정고시할 계획이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

목포시, 5개 시장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전라권 최대 선정... 전통시장 활기

목포시가 해양수산부 주관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5개 시장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시는 지난 해부터 명절기간과 전국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특별전 등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적극 참여했고, 전라남북도를 포함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지원 시장 중 최대 선정되는 등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이번에는 5개 시장이 환급행사에 선정됨에 따라 시는 이번 달 30일과 31일 개최되는 유달산 봄축제와 5월 14일부터 열리는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 기간동안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필리핀 여행업계 대상 경주·포항 팸투어

경북도-경북문화관광공 진행

경북도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는 필리핀 관광시장 공략을 위해 지난 7~8일 1박 2일 동안 필리핀 주요 여행업계 8개사를 대상으로 경주, 포항 지역 팸투어를 진행했다.

이번 팸투어는 올해 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트래블 투어 엑스포 2024(Travel Tour Expo 2024)'에서 협의가 이뤄진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했다.

한국관광공사 마닐라지사, 경북도, 경북도문화관광공사, 부산관광공사 공동기획 사업으로, 기존 강세였던 수도권 외의 지역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추진했다.



경북도와 경북도문화관광공사는 지난 8-9일 필리핀 여행사 대상 경주,포항지역 팸투어를 가졌다. /경북도

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3월부터 6월까지 매월 1회 주말특별전으로 운영된다.

주말특별전은 4개월 간 중앙식료시장과 종합수산물시장 3회, 자유시장과 동부시장, 청호시장이 각각 2회 운영된다. /목포(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대구국제섬유박람회, 대구엑스코서 개막

13일 시작... 국내외 322개 업체 참여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동 주최하고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가 주관하는 '2024 대구국제섬유박람회(Preview In DAEGU)'가 국내외 322개 업체(국내 203업체, 해외 119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엑스코에서 13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3일간 열띤 비즈니스의 장이 열린다.

10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22회를 맞이한 대구국제섬유박람회는 국내 최대 섬유

소재 비즈니스 박람회로, 우리나라 섬유패션산업 수출 확대와 내수 거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해 오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다변화된 소비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적응성(ADAPTABILITY)'을 주제로 시장환경에 대응하는 새로운 섬유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첨단 미래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첨단융합소재 개발, 탄소중립·친환경 기반 조성, 디지털·스마트화 전환'을 박람회의 전시 방향으로 내세우고 있다. /대구=김상복 기자 ksb8100@